

2016년 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6년 3월 24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 성 근 위 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장 택 규 커뮤니케이션국장	장 민 조사국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변 성 식 안정총괄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3호 - 2015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15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3월 16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연차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및 경영상황을 독자들에게 보다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한국은행의 조직가치 설정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부서장 명단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 축소, 공개시장운영 명칭 변경 등 통화정책 관련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배경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지원 현황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행의 정책경험을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등과 공유하는 활동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부록>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에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의 주요 논의내용도 수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들은 주요국 중앙은행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연차보고서의 체제와 구성 및 분량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5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5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25호 -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5호 -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3월 2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개별부문의 위험요인별로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의 상호작용에 따른 증폭효과를 감안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손실흡수력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기업 구조조정의 폭을 결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은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두 영역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에는 실물 및 금융간 연계성과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간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당행이 스트레스 테스트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평가모형인 SAMP는 실물 및 금융간 연계성에 따른 파급효과도 파악할 수 있는 모형으로 지금까지는 대내외 충격 발생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개별 부문이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별 부문의 위험과 대내외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 금융·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실물 및 금융부문간 상호 연계성,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간 상호관계 등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차주의 소득 및 자산분위별 가계부채 현황분석 외에 보유주택 수에 따른 부채 분포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세계적으로 프로그램(program) 및 알고리즘(algorithm) 매매가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시장에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늘어날 경우 단기차익거래 증가 등을 통해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변화 등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운영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도 현재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하며 금년 하반기 중 이러한 방식에 의해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보고형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중요도가 높은 이슈(issue)를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끝으로 일부 위원은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용체계 수립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안정상황 점검결과가 통화정책, 미시건전성정책 및 외환정책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당부사항 중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운영방식 및 보고서 형식 등에 대해서는 유관부서들과 함께 검토하여 금년 9월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여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수행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관련 보고내용

Ⅰ. 거시 금융안정상황

1. 시스템리스크 상황

2015년말 현재 민간신용/GDP 비율은 전년말대비 상승하였으며 민간신용/GDP 비율과 동 비율의 장기추세 간 차이를 나타내는 민간신용/GDP 갭도 3/4분기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 부문별로 보면 가계부문의 갭은 플러스세가 지속된 반면 기업부문의 갭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음

금융기관간 자산·부채 연계규모가 은행-비은행간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금융권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연계규모의 비중은 축소되었음

2. 금융기관 경영상황

2015년중 국내은행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고 자본적정성도 견조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유동성 사정도 양호한 수준에 있으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되었음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은 높은 자산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자본적정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

3. 금융시장 안정성

국내 금융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여건 악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위험이 증가하였음. 외국인 증권자금의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 큰 폭 유출되다가 2월 이후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 등에 따라 유입으로 전환되었음

4. 외환건전성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여건은 신흥국 경제불안 등의 영향으로 은행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다소 악화되었으나 단기외채 감소 및 대외채권 증가 등 대외지급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외환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5. 종합평가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 및 가계부채 상황에 보다 유의하는 한편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함. 또한 대외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해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 주요 리스크 및 이슈 분석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 평가)

□ BIS 통계에 의한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2015년 3분기 현재 분석대상국(41개) 중 중간 수준(24번째)에 해당하는 등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가 여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크로 레버리지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며 특히 가계와 정부부문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

□ 금년중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여신(주담대)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주택경기 둔화 예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기관의 충격흡수여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다만 대내외 충격 발생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금융불안이 촉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해외 위험요인 점검)

-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 등 경기 둔화, 국제유가 불안, 취약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불안정성이 재개될 가능성 상존
 -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장불안이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응이 중국 경기둔화, 유가 불안, 신흥국 재정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우므로 당분간 금융불안이 발생할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증권 청산·결제 인프라의 안정성 점검)

- 증권 청산·결제 인프라에 대해 평가를 실시
 -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CCP와 장외파생상품 CCP의 경우 현금성 자산비중을 확대하고 자산별 담보인정비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필요
 - 장외 채권거래 관련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경우 장애복구 대응 모의훈련 확대 및 IT장애 관련 의사결정 권한 개선 필요